

교육단상칼럼

‘취업·학업·창업’으로 대학의 3업(業) 시대를 열자

홍승용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천연자원이 없어 인적자원만으로 국제경쟁을 치열하게 해야 하는 나라, 부모가 빚을 내서라도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고 고졸자의 80% 이상이 대학에 가는 나라, 그러나 대학을 나와도 변변한 일터에 취업하기가 어려운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다. 취업이 중요하다보니, 정부재정지원과 대학구조조정을 위한 대학의 교육성과 평가에서 취업률은 중요하다. 매년 대학 졸업자는 약 54만 명이고 취업률은 55%에 불과하다. 진학률이 7%로 취업과 학업 비율을 합치면 62% 정도에 불과하다. 문제는 취업과 학업을 안 하는, 사실은 못하는 나머지 38%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다.

과거에는 GDP가 1% 성장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8~9만 명이 창출되었으나, 최근에는 3~4만 명 수준에 그친다. 고용 없는 저성장시대가 도래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대학의 기본 임무도



변화되어야 한다.

창업은 취업대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개척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창직(創職)이다. 창업은 학업·취업과 함께 대학의 3대 교육 목표가 되어야 한다.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보고서는 ‘국민소득 2만 불까지의 성장은 생산요소의 투입만으로 달성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가정신, 즉 창업이 관건’이라고 한다. 미국의 경우, 국민소득 2만 불 달성 시점에 MIT, 스탠포드대 등 400여개 이상의 대학이 기업가 정신 교육의 전면적 확산과 더불어 정규 창업 교과목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의 창업 벤처를 통해 수많은 캠퍼스 CEO가 탄생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세운 빌 게이츠,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 애플의 스티브 잡스, 위키피디아의 지미 웨일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등은 캠퍼스 CEO의 성공모델이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최근 7월 청와대에서 ‘캠퍼스 CEO 육성과 대학생 창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였다. 주요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창업교육은 시대적 소명’이며, 대학에 창업전문 정규학위과정을 개설하도록 장려하자는 것이다. 창업 학위과정은 창업 중점교수와 기업체 창업 실무담당교수가 합동하여 이론을 겸비한 실무를 가르치는 것이다. 대학수요자인 대학생들에게 미래창업을 위한 교과과정을 대폭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불과 몇 개의 창업특성화 대학만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학들이 창업교육을 필수적으로 가르치자는 것이다. 둘째, 창업에 도전하는 대학생들의 실패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융자위주의 자금조달은 실패하는 경우,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연계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자금지원을 융자중심에서 투자중심으로 전환하여 창업에 대한 패자부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학에 신용회복 교육과정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자들에게는 신용을 회복하게 하고, 젊은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을 높이자는 것이다. 셋째, 엔젤투자자와 같은 창업자금을 대학이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학 내에 창업지원용 투자운용회사를 설립하도록 하며, 투자자금 확보는 소셜 펀딩 방식으로 투자자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학재정 확충의 새로운 대책으로 대학의 영리적 행위를 풀어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관련법으로 투자조합을 결성토록 하는 것이다. 끝으로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을 (가칭)한국창업재단으로 확대 개편하도록 하는 것이다.

취업의 문은 좁지만, 창의력, 열정, 성취동기가 높은 젊은이들에게 창업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대학도 ‘2업(취업·학업) 시대’에서 ‘3업(취업·학업·창업)시대’를 열어가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프랑스 르아브르 대학교에서 명예경제학 박사, 미국 로더아일랜드대학교에서 명예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해양수산부 차관, 인하대학교 총장, 교육과학기술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일하고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바다와 대학」, 「한국의 해양정책연구」, 「대한민국 고등교육 구조개혁의 방향과 정책」 등이 있다. 주요관심분야는 고등교육정책, 대학경영, 해양정책 등이다.
